



Cool & Lovely

런닝맨 에이스 송지효의 매력

화장기 없이 자연스러운 미인.
웃을 때 미소가 너무 예쁘다.
성격이 털털하고 순수해
보인다. 중저음의 목소리가
매력적이다. 연기를 정말
잘 하지만 겸손하고 잘난
척 하지 않는다. 모두 배우
송지효를 겨냥한 칭찬들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배우
송지효의 매력을 파헤쳐본다.
글 이은정 기자 사진 뉴시스, SBS



사진 뉴시스

지난 11월 22일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에서 열린 '2013 MAMA(2013 Mnet Asian Music Awards)'에서 배우 송지효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베스트 뮤직비디오상 시상자로 김종국과 송지효가 등장하자 관객들이 환호성을 외치며 송지효의 이름을 연호한 것. SBS '런닝맨'의 세계적 인기를 실감케 하는 부분이었다. 송지효 본인도 예상 외로 높은 인기에 당황했는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제 한류는 음악을 넘어 예능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배우 송지효가 있다.

영화와 드라마, 예능까지

배우 '송지효'를 떠올리면 우선 생각나는 것은 다양한 분위기이다. 화장기 없이 자연스럽게 예쁜 얼굴은 언뜻 보면 멍해 보이고 때로는 냉정하고 무뎡뎡해 보인다. 그런가 하면 솔직담백하고 털털해 보이는 모습에 방심한 순간 다정한 눈웃음과 'LOVELY' 한 애교가 이어진다. 상당히 COOL한 소년 같은 매력과 우아하고 성숙한 여성의 매력을 동시에 가진 배우. 털털한 입담은 기본 때로는 톡 쏘는 '돌직구'도 서슴지 않으니 이 정도면 천의 얼굴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송지효는 2001년 잡지 '키키'의 모델로 데뷔한 이후 영화와 드라마, 예능, 패션, 광고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변신을 이어왔다. 영화 '여고괴담3'에서 진성 역을 맡아 친구의 재능을 질투하는 여고생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해냈고, 드라마 '주몽', '계백', '천명'과 영화 '쌍화점'에서는 사극 특유의 단아하면서도 심지가 굳은 여성상을 잘 풀어냈다. 영화 '자칼이 온다'에서는 수상한 납치극을 벌이는 킬러 봉민정을 연기했다. 일명 '뽀글이 파마'라고 불리는 풍성한 헤어스타일에 어설픈 칼솥씨를 선보이는 인물이다. 이 외에도 드라마 궁, 영화 썸, 쌍화점, 신세계 등이 대표적인 출연 작품. 송지효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배우로서 다양한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표다"라고 자신의 연기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건강미인으로 패션계에서 러브콜

무엇보다 지금의 송지효를 있게 한 프로그램으로 '런닝맨'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런닝맨에서 '에이스'로 활약하며 그녀만의 톡톡 튀는 발랄함과 엉뚱함, 가슴 밑바닥에 숨어 있는 열정과 승부근성을 100% 발휘했다. 특히 깨끗한 피부에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건강미인이라는 타이틀까지 획득했다. 실제로 그녀는 스케줄을 소화해내기 힘들지 않냐는 물음에 "워낙 건강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건강을 자신한 바 있다.

최근 송지효는 다른 런닝맨 멤버들과 함께 런닝맨 아시아 팬미팅 'Race Start'의 마지막 여정인 싱가포르에서 성황리

에 팬미팅을 마쳤다. 이날 팬미팅에서는 런닝맨 멤버들과 팬들과의 유쾌한 토크가 진행되었고, 멤버들의 합동 콘서트 런닝맨 관련 특별 VCR 감상, 팬들과 함께 하는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현장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다. 특히 개리-송지효, 월요 커플에 대한 호응이 굉장했으며, 기자회견이나 개별 인터뷰에서도 월요 커플의 애정라인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런닝맨이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면서 송지효의 인기 또한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것. 수 많은 매력의 소유자 송지효는 최근 모델로서 더욱 완벽하게 다져진 몸매로 활발한 모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01년 패션지 모델로 데뷔한 후 배우로써 더 많은 활약을 하였지만, 꾸준한 관리로 '패션모델'로서 본색을 다시 찾았다는 평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대표적인 여배우로 굳건히 자리매김한 송지효의 또 다른 변신을 앞으로도 기대해 본다. ☺

